

완도군, 2026 모범·성실 납세자 총 100여 명 선정

모범 납세자에 표창·증명서 수여, 성실은 서한문·상품권 발송

완도군에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
에 앞장서고 재원 확보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법인 2개소, 개인 2명)와 성실 납
세자(개인 100명)를 선정했다.
모범 납세자는 '완도군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법인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자이다.
올해는 주식회사 한국분체(대표 문창
훈), 주식회사 평화(대표 국인호), 완도
읍 김승주, 신지면 김민재 님이 모범 납
세자로 이름을 올렸다.
성실 납세자는 선정일 기준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3건 이

상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
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군 감사실 납세자 보호관이
참관한 가운데 무작위 전산 추적을 통해
3,858명 중성 성실 납세자 100명을 선정
했다.
군은 지난 25일 모범 납세자에게 군
수 표창과 증명서를 전달했으며, 모범
납세자에게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
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
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합
계 10만 원 상당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우
편으로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고흥군, 담양군과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 동참 고흥군 문화체육과↔담양군 주민복지과 교차 기부 참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6일 고흥
군 문화체육과와 담양군 주민복지과 공직
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교차 기부
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에는 양 지자체 공직자
각각 25명이 참여해 상호 기부를 진행했
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 간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참여 직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서로의 지
역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 기쁘

다"는 등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따뜻
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고흥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공직자
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교
차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
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
생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의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 장구를 통해 참여
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
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
이 제공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직접 키운 딸기, 이웃과 나눠요”

담양 청년농, 정성 담은 딸기로 이웃사랑 실천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스
마트팜 경영실습임대농장 실습생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지역사회에 기
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경영실습임대농장의
청년 농업인 양진석 씨는 지난 26일 지역
복지시설에 자신이 재배한 딸기와 가공품
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첨단 농업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얻은 결실을 지역사회에 나누
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진석 실습생은 담
양군 소재 '예수마음의 집'을 방문해 딸기

1kg 40박스(딸기 100병(350g) 약 130
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양진석 씨는 "농업
기술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며 "배운 기술로
키운 농산물이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이
기술 습득을 넘어 나눔까지 실천한 점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
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 현장 밀착
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은 담양군이 2019년 국비를 확보해 조성한 딸기 시설하우스로,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1~3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재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함평군 읍다면, 민·관 협력...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서

복지기동대 등 관내 단체 참여·화재예방교육 병행 추진

전남 함평군 읍다면이 어려운 이웃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함평군은 27일 "읍다면이 지난 26일 관
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
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읍다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중심으
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번영회, 새마을부
녀회, 남녀의용소방대 등 지역 내 여러 단
체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
해 주택 내·외부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정
리정돈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

을 펼쳤으며,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 위
한 간단한 수리 작업도 병행했다. 또한 감
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함께 실시
해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특히 함평소방서의 협조로 주택 내 화
재 위험요소 점검과 함께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 개선
사업 대상자에게 화재예방 교육과 안전지
도도 실시해 생활안전 확보에 힘썼다.
정동안 읍다면장은 "이번 사업은 민·
관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까지 함께 챙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
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정수 복지기동대장은 "앞
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
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읍다면은 향후 마을 이장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 대상자를 지속적
으로 발굴하고 함평소방서와의 협업을 통
해 정기적인 소방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교육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영암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 현장 대응력 강화

영암군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 대
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는
군은 지난 26일 11개 읍·면 맞춤형복
지팀장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를 열고, 2026년 운영 지침 변경사항과 성
과평가 대비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기가구 발굴과
생활불편 해소 등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앱을
활용한 홍보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영암군은 복지기동대 운영 체계를 정
비해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남형 복지모델로,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 등을 통해 지
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
다.
하혜성 영암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변경된 지침을 정확히 이
해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효율적인 방
법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앱을 활용한 복지기동대 활동 홍보에
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제65회 2026. 4. 10.(금) ~ 4. 13.(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4회 2026. 4. 22.(수) ~ 4. 24.(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구례군공설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제34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구례군